

전북은행, 소상공인 금융 지원 빛났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서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전북은행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 19일 서울 중소기업DMC에서 열린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전북은행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단체 부문 최고 영예를 안았다.

전북은행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지역 기업 지원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 △비대면 금융서비스 혁신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은행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최근 3년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연평균 59억 원을 특별 출연해, 연평균 1,540억 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하며 지역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689억 원, 올해 1,110억 원을 신규 지원했다. 최근 2년간 총 1,79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취급하며 2년 연속 전체 은행권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비대면 취급 방식을 도입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신속한 금융 지원을 제공해 지역 경제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전북은행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내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료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은행 최초로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보다 간편한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이는 등 상생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방침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상환 구조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의 포용 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탄소복합재 수요·공급 기업 협력 강화

한국탄소산업진흥원·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성과보고회 개최

탄소복합재 분야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그라핀 센서의 상용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 성과보고회'를 공동 개최했다.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획하고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운영하는 산·학·연 협의체로, 탄소복합재 기술의 사업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우주항공, 방산, 에너지, 라이프케어 등 총 6개 워킹그룹이 운영됐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국산 풍력 블레이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과 기관 간 협력 방안 도출과 함께, 지난 11월 '해상풍력 블레이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있다. 또한 수소저장용기 관련 기업들

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국내 수소저장용기 파일 압력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탄소 소재·부품 기술의 시장 기반 구축에 힘을 쏟았다.

특히 성과보고회에서는 그라핀 소재 기반 센서 기술을 의료기기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공개됐다. 그라핀 센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엠씨케이테크와 센서 구조 설계 및 동작 메커니즘 기술을 보유한 (주)에이비리스터컴퍼니는 체외진단기기와 의료기기 분야 응용 제품 개발을 위한 '그라핀 센서 파운드리 서비스 구매의향 협약'을 체결했다.

체외진단기기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세한 생체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의 감도와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뛰어난 전기전도성과 높은 민감도를 가진 그라핀 소재가 시장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한우 브랜드 '참예우', 전국 최초 13년 연속 명품 인증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도 17년 연속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의 한우 광역브랜드 '참예우'가 전국 최초로 13년 연속 명품 브랜드 인증을 받았다.

또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도 17년 연속 이어가며 전북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협경제지주 주관의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참예우'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연속 국가 명품 인증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참예우'는 앞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대통령령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참예우'는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 인증 평가에서도 17년 연속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은 전문가와 소비자 평가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 위생 수준이 뛰어난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도로, 올해도 20회를 맞았다. 학계와 축산 관련 기관,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브랜드를 선정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서민석 NH참여우조함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이번 성과는 도내 각 시·군 조합의 철저한 관리와 참여 농가들의



지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협경제지주 주관의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참예우'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연속 국가 명품 인증을 수상했다.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품질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명품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자체평가 워크숍

전북테크노파크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체평가 워크숍을 열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부안 모항 해너투 가족호텔에서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자

체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순창, 김제, 남원, 장수 등 전북 도내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자체 실적 점검을 통해 각 시군별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



를 높이고 지역 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했다. /오상근 기자

행사는 전북테크노파크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등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혁신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익산시, 간담회 가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8일 익산시청에서 익산시와 함께 여성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성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금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 지역업체 우선 구매와 관련한 애로사항, 익산시가 지원 중인 공영홈쇼핑 및 물류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와 향후 지속 지원 여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통합일자리센터 설립을 통해 인력 수급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력이음을 지원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경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은 "현장에서는 정책과 실제 기업 환경 사이의 간극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숙련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익산시의 다양한 인재 양성 센터와 프로그램에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익산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력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한국전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 한 냉동수산물 업체에 한국전력을 사칭한 허위 공문이 발송됐다. 해당 공문에는 통신 케이블 교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 과정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정 070 번호로 전화 착신전환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업체는 공문 내용에 의심을 품고 한국전력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실제 한전 공사와는 무관한 보이스피싱 시도로 확인됐다. 다행히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